

정신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아존중감

강 문 희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esteem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s

Gang, Moonhee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esteem of psychiatric nurses and to identify factors that influ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Methods:** A cross-sectional study design was used in this study. The participants for this study were 158 psychiatric nurses from D city & C province. The instruments were the Californi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ventory (CCTDI) and Self-Esteem Scale (S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the SPSS/WIN 11.5 program. **Results:** The mean scores fo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esteem were 186.4 ± 13.96 and 30.5 ± 3.95 respectively.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esteem was found ($r = .33, p < .001$). In regression analysis, types of certification, education, work place and self-esteem explained 57% of the variance i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for these nurses. **Conclusion:** Participants who had higher level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end to exhibit a positive self-concept. It is necessary to provide interventions program to improve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concept of psychiatric nurses.

Key Words: Nurs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 concept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료수준이 높아지고 질병의 특성과 대상자의 정신 건강에 대한 요구가 복잡해짐에 따라 국민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신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역할기대와 그에 따른 책임도 점차 막중해지고 있다. 정신간호사는 임상과 지역사회 내에서 일반간호사와는 다른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며, 정신간호 대상자들의 특성상 인권이나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위기상황에 노출되기 쉽다. 또, 정신간호사의 반응은

곧 치료와 연결되므로 자신이나 업무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더불어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과 종합적인 의사결정능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Fredric, Patsy, & Judith, 2007; Kim & Nam, 2007).

이에 정신간호사는 이러한 간호상황에 적절히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과학적인 사고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적합한 사고패턴 중 하나가 비판적 사고이다. 비판적 사고는 간호사의 임상적 의사결정, 임상수행능력 및 연구결과를 실무에 적용하는 근거기반 실무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호사가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핵심 실무능력이자 간호

주요어: 정신간호사, 비판적 사고성향, 자아존중감

Address reprint requests to: Gang, Moonhee, College of Nurs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6 Munhwa 1-dong, Jung-gu, Daejeon 301-747, Korea. Tel: 82-42-580-8332, Fax: 82-42-580-8339, E-mail: mhgang@cnu.ac.kr

투고일 2011년 7월 26일 / 수정일 1차: 2011년 10월 13일, 2차: 2011년 12월 11일 / 게재확정일 2011년 12월 11일

교육의 목표가 되고 있다(Ahn, 2004; Park & Kwon, 2007; Profetto-McGrath, Hesketh, Lang, & Estabrooks, 2003).

비판적 사고는 추측보다는 사실이나 증거에 근거한 반성적 사고과정으로 비판적 사고기술과 같은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려는 내적 동기나 자신감과 같은 정의적 영역인 비판적 사고성향으로 이루어져 있다(Barbara, 2005; Moore & Parker, 1992). 특히, 비판적 사고성향은 비판적 사고를 향상시키기 위해 우선되어야 할 선행 요소이며 교육이나 실무에서 훈련에 의해 변화가 가능하므로 더욱 강조되고 있다(Profetto-McGrath, 2003). 그동안 정신간호 영역에서는 정신간호사의 수와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정신보건간호사나 정신전문간호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정신간호의 수준이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정신간호사의 전문직에 대한 제도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Kwon, Ko, Kim, & Kim, 2010). 따라서, 정신간호사의 전문직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신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 정도를 파악하고 관련 요인을 탐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비판적 사고성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선행 문헌을 보면, 학력, 교과과정, 연령, 임상경력, 근무부서, 결혼상태, 직위, 숙련도(Lim, 2004; Park & Kwon, 2007)와 자아존중감(Barkhordary, Jalalmanesh, & Mahmoudi, 2009; Lee, 2009; Wafika & Jihad, 2007)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거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를 유도하기 위한 내적 동기 등 정의적 영역에 대한 탐색이나 비판적 사고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중 자아존중감은 자신이나 환경에 대한 평가나 지각을 말하며(Rogenberg, 1965), 비판적 사고성향의 정서적 특성 중 하나로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아정체성 및 도덕성과 관련이 있으며 간호전문직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Gert, Carlo, & Wim, 2007; Profetto-McGrath, 2003). 비판적 사고와 같은 반성적 사고는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해석, 분석, 평가 및 추론과정을 산출하는 의도적인 과정으로서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자기평가를 반영하게 된다(Park, 2010). 즉,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반면에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새로운 경험에 대해 수용적이며 자기 자신에 대해 가치 있게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결정능력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도와 비판적 사고과정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내

적 동기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Rogenberg, 1965; Wafika & Jihad, 2007). 이와 관련하여 Lim (2004)은 자신의 추론과정에 대한 믿음을 가진 간호사는 비판적 사고를 통해 정확하고 적절한 중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고, Barkhordary 등 (2009)는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존중과 생각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은 비판적 사고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내적 동기요인으로서 비판적 사고성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비판적 사고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주요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이를 확인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정신간호사의 비판적 사고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 정도를 확인하고 비판적 사고성향과의 관계를 규명하여 이를 반영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아존중감 정도 간의 상호 관련성을 확인하고 비판적 사고성향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정신간호사의 비판적 사고능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아존중감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정신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아존중감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인간의 관계를 확인하며, 비판적 사고성향에 대한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D시와 C지역 소재 대학병원 정신과 병동과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보건센터, 보건소에 근무하는 정신간호사이다. 대상자수는 G*Power program 3.1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multiple regression에서 유의수준 .05, 중간수준의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독립변수 6개를 포함하는데 필요한 표본 수는 총 146명이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먼저 C 대학의 의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승인(IRB 제11-13호)을 받은 다음 수행되었다. 조사기간은 2011년 6월 20일부터 30일까지였으며, 본 연구자는 먼저 직접 해당 지역의 정신간호사회에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구두동의를 얻은 후 협조를 구해 220명의 회원명단을 받았다. 이들 중 보수교육에 참석한 대상자 120명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익명성, 비밀보장에 대해 알리고 연구에 동의하는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직접 배부하여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100부를 수거하였으며 (83.3 %), 그 외 대상자는 D시와 C지역 소재의 3개 정신병원, 2개 대학병원, 3개 정신요양시설의 간호부서장에게 연구자가 직접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협조를 구하여, 보수교육에 참석하지 않았고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을 구두 동의한 대상자들의 수를 취합한 다음 설문지 100부를 우편 발송하여 70부(70.0%)가 회수되었다. 이중 불충분한 자료 12부를 제외한 158부(72.2%)를 최종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문지에 연구의 목적과 익명성, 연구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연구대상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철회가 가능하고 응답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고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임을 기록하였고 연구참여에 서면동의 후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3. 연구도구

1) 비판적 사고성향

Facione, Facione와 Giancarlo (1994)가 개발한 Californi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ventory (CCTDI)를 Hwang (1997)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비판적 사고를 위한 7가지 성향 즉, 진실추구 8문항, 개방성 5문항, 분석 5문항, 체계성 7문항, 비판적 사고 자신감 9문항, 호기심 10문항, 성숙 6문항의 6점 척도('전적으로

동의한다' 6점, '매우 동의한다' 5점, '약간 동의한다' 4점,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3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2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1점)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저 50점에서 최고 3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하며, 170점 이하이면 비판적 사고성향이 약한 것을 의미하고, 210점 이상이면 비판적 사고성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Hwang (199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85였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 .78이었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로 전반적으로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태도를 말한다 (Rosenberg, 1965).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 (1965)가 개발하고 Jeon (1974)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개 문항 4점 척도로 점수범위는 최저 10점에서 최고 40점이다. 부정문항은 역채점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Jeon (197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85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 .72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비판적 사고성향, 자아존중감 정도는 서술적 통계를 이용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자아존중감 정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 분석은 Scheffé test를 이용하였다.
-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5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Age(year)		37.9±8.92
	< 30	44 (27.8)
	30~39	54 (34.2)
	≥ 40	60 (38.0)
Marital status	Unmarried	51 (32.3)
	Married	107 (67.7)
Religion	Yes	105 (66.5)
	No	53 (33.5)
Education	College	61 (38.6)
	University	86 (54.4)
	≥ Graduate	11 (7.0)
Total career length (year)		11.2±6.99
	< 5	30 (19.0)
	5~9	43 (27.2)
	10~14	35 (22.2)
	≥ 15	50 (31.6)
Working place	Hospital	90 (57.0)
	Community	68 (43.0)
Current position	Staff nurses	116 (73.4)
	≥ Head nurses	42 (26.6)
Types of certification	Nurse	103 (65.2)
	PMHNPs	48 (30.3)
	MHPProfessionals	7 (4.5)
Job satisfaction	Very satisfied	30 (19.0)
	Satisfied	105 (66.5)
	Unsatisfied	23 (14.5)

PMHNPs=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 practitioners;
MHPProfessionals=Mental health professionals.

연령은 37.9세였으며, 결혼상태는 미혼이 32.3%, 기혼이 67.7%였다. 대상자는 66.5%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교육정도는 3년제 대학 졸업이 38.6%, 4년제 대학 졸업이 54.4%, 석사학위 이상이 7.0%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총 간호사 경력은 평균 11.2년이었으며, 현재 근무지는 정신 병원 및 정신과 병동을 포함한 병원이 57.0%, 정신보건센터, 정신요양시설 등 지역사회가 43.0%였다. 대상자의 현재의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73.4%로 가장 많았고, 수간호사나 팀장 이상이 26.6%로 나타났다. 대상자가 취득한 자격증 종류는 일반정신간호사가 65.2%로 가장 많았고, 정신보건간호사가 30.3%, 정신전문간호사가 4.5%였으며, 현재 대상자가 담당하고 있는 정신간호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 만족한다’에 19.0%, ‘만족한다’에 66.5%, ‘불만이다’에 14.5%가 응답하였다.

2.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아존중감 정도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아존중감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정도는 총 50문항의 6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총 300점 만점에 평균 186.4점이었으며, 6점 만점에 평균 평점은 3.7점으로 대상자는 중간수준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나타냈다. 각 하위영역별 문항별 평균을 살펴보면, 분석에서 4.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비판적 사고 자신감 3.9점, 호기심 3.9점, 진실추구 3.7점, 체계성 3.6점, 성숙 3.2점, 개방성 3.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총 10문항의 4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총 40점 만점에 평균 30.5점이었다.

Table 2. Degree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esteem

(N=158)

Variables (number of items)	M±SD	M±SD/number of items	Min	Max
Total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186.4±13.96	3.7±0.27	3.1	4.4
Truth-seeking (8)	30.2±3.30	3.7±0.41	2.7	4.7
Open mindness (5)	15.8±3.01	3.1±0.60	1.6	4.6
Analyticity (5)	20.1±2.71	4.0±0.54	2.8	5.4
Systematicity (7)	25.2±2.66	3.6±0.38	2.2	4.4
Critical thinking self-confidence (9)	35.9±4.34	3.9±0.48	2.7	5.5
Inquisitiveness (10)	39.7±3.68	3.9±0.36	3.0	5.3
Maturity (6)	19.3±3.26	3.2±0.54	1.6	4.5
Self-esteem	30.5±3.95	3.0±0.39	1.6	3.9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아존중감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아존중감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교육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대학원 졸업, 대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순으로 나타났다($F=24.30, p<.001$). 근무지에 따라서는 병원에 근무하는 집단이 지역사회에서 근무하는 집단보다 비판적 사고성향 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2.35, p=.020$), 현재의 직위에 따라서는 일반간호사보다는 수간호사나 팀장 이상이 비판적 사고성향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t=-2.11, p=.036$). 취득한 자격증의 종류에 따라서는 정신전문간호사, 정신보건간호사, 일반정신간호사의 순으

로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77.44, p<.001$). 직무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매우 만족’ 집단이 ‘만족’ 및 ‘불만족’ 집단보다 비판적 사고성향이 유의하게 높았다($F=6.49, p=.002$). 하지만, 연령, 결혼상태, 종교, 간호사의 경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교육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대학원 졸업, 대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순으로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나($F=5.20, p=.007$), 사후 검정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취득한 자격증의 종류에 따라서는 일반정신간호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전문간호사의 순으로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F=7.50, p<.001$), 사후 검정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밖에 연령, 결혼상태, 종교, 간

Table 3. Difference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esteem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158)

Characteristics	Categorie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esteem	
		M±SD	t or F (<i>p</i>) Scheffé	M±SD	t or F (<i>p</i>) Scheffé
Age (year)	< 30	186.5±14.96	0.03 (.964)	30.6±3.80	0.55 (.573)
	30~39	186.0±14.19		30.9±3.97	
	≥ 40	186.7±13.20		30.1±4.08	
Marital status	Unmarried	187.4±15.22	0.58 (.556)	30.9±4.09	0.82 (.408)
	Married	186.0±13.37		30.4±3.89	
Religion	Yes	186.8±14.07	0.46 (.644)	30.7±4.06	0.84 (.400)
	No	185.7±13.84		30.2±3.75	
Education	College ^a	180.2±12.02	24.30 (<.001) a < b < c	29.4±3.69	5.20 (.007)
	University ^b	188.2±11.96		31.0±3.83	
	Graduate ^c	207.1±15.65		32.9±4.88	
Total career length (year)	< 5	187.8±13.79	0.60 (.615)	30.9±4.05	2.29 (.080)
	5~9	182.7±13.57		31.0±3.79	
	10~14	185.0±13.29		29.8±3.67	
	≥ 15	189.9±14.31		30.5±4.25	
Working place	Hospital	188.7±14.39	2.35 (.020)	30.9±3.98	1.24 (.215)
	Community	183.5±12.87		30.1±3.90	
Current position	Staff nurses	185.0±13.21	-2.11 (.036)	29.3±3.77	-1.05 (.292)
	≥ Head nurses	190.3±15.36		30.0±4.20	
Types of certification	Nurse ^a	179.4±9.91	77.44 (<.001) a < b < c	29.1±3.99	7.50 (.001)
	PMHNPs ^b	198.6±10.09		30.3±3.65	
	MHPProfessionals ^c	212.0±7.95		31.0±2.82	
Job Satisfaction	Very satisfied ^a	193.6±16.34	6.49 (.002) a > b, c	31.5±3.93	2.18 (.116)
	Satisfied ^b	185.7±12.71		30.6±3.95	
	Unsatisfied ^c	180.6±12.92		29.2±0.07	

PMHNPs=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 practitioners; MHPProfessionals=Mental health professionals.

호사의 경력, 근무지, 현재의 직위, 직무만족도에 따라서는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33,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성향의 하위영역 중 분석($r=.28, p<.001$), 체계성($r=.16, p<.001$), 비판적 사고 자신감($r=.37, p<.001$), 호기심($r=.21, p<.001$)과 자아존중감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진실추구, 개방성, 성숙 하부척도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5. 비판적 사고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통계적 차이를 나타낸 일반적 사항과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Table 5). 범주형 변수인 일반적 사항(교육, 근무지, 직위, 자격증, 직무만족)은 가변수 처리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검증을 위해 살펴본 공차한계(tolerance)는 .90~.97, 분산팽창지수(VIF)는 1.02~1.10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urbin-Watson값이 1.75로 잔차의 자기상관성은 없었고, 잔차의 정규분포성이나 등분산성은 표준화 예측값과 표준화 잔차의 산점도 상에서 정규분포와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여 회귀분석결과가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변수가 모두 입력된 상태에서 산출된 회귀모형의 모형적합도가 적절하였고($F=24.22, p<.001$),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에 대하여 자격증(정신전문간호사 $\beta=-.55, p<.001$), 교육정도(석사학위 이상의 학력 $\beta=-.44, p=.001$), 근무지(병원 $\beta=.12, p=.025$), 자아존중감($\beta=.11, p=.039$)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은 비판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esteem

(N=158)

Variables	CTD r (p)	TS r (p)	OM r (p)	Analyticity r (p)	Systematicity r (p)	CTS r (p)	Inq. r (p)	Maturity r (p)	Self-esteem r (p)
CTD	1								
TS	.65 ($<.001$)	1							
OM	.47 ($<.001$)	.38 ($<.001$)	1						
Analyticity	.64 ($<.001$)	.25 ($<.001$)	.06 (.391)	1					
Systematicity	.53 ($<.001$)	.33 ($<.001$)	.12 (.127)	.22 (.005)	1				
CTS	.68 ($<.001$)	.17 ($<.001$)	-0.0 (.812)	.61 ($<.001$)	.33 ($<.001$)	1			
Inq.	.71 ($<.001$)	.32 ($<.001$)	.14 (.070)	.44 ($<.001$)	.22 (.005)	.59 ($<.001$)	1		
Maturity	.48 ($<.001$)	.33 ($<.001$)	.43 ($<.001$)	.10 (.195)	.13 (.084)	-0.0 (.922)	.13 (.088)	1	
Self-esteem	.33 ($<.001$)	.12 (.132)	.13 (.082)	.28 ($<.001$)	.16 ($<.001$)	.37 ($<.001$)	.21 ($<.001$)	.06 (.389)	1

CTD=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S=truth-seeking; OM=open-mindedness; CTS=critical thinking self-confidence; Inq.=inquisitiveness.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N=158)

Variables	β	t	p	Adjusted R ²	F (p)
Types of certification (mental health professionals)	-.55	-9.74	< .001	.57	24.22 (< .001)
Education (\geq graduate)	-.44	-3.45	.001		
Working place(hospital)	.12	2.26	.025		
Self-esteem	.11	2.08	.039		

† Dummy variables: Types of certification (Nurse=0;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 practitioners=1; Mental health professionals=2), Education (College=0; University=1; \geq Graduate=2), Working place (Hospital=0; Community=1)

적 사고성향에 대하여 57%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논 의

최근 복잡하고 전문화된 새로운 의료환경에서 간호사들이 전문가로서 좀 더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고 근거에 기반한 수준 높은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 강조되고 있는 것이 비판적 사고이다. 정신간호영역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비판적 사고의 선행요소인 비판적 사고성향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며 이에 본 연구는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아존중감 정도 및 관련성과 비판적 사고성향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정신간호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비판적 사고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평균 186.4점이었다. 이는 동일한 대상의 비판적 사고성향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여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과 비교해 볼 때, Sung과 Eum (2009)의 연구결과 평균 181점과는 유사하였고, Kim (2007)의 연구결과 평균 198점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모두 210점 미만의 중간수준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나타냈다는 점에서는 일치되는 결과였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은 평균 연령 37.9세, 총 임상경력 11.2년으로 Sung과 Eum (2009)의 연구에서 간호사 평균연령 27.8세, 총 임상경력 5년, Kim (2007)의 연구에서 간호사 평균연령 30.2세, 총 임상경력 7.5년보다 연령과 임상경력이 더 높았으며, 또 정신과 영역의 임상과 지역사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신간호사와 내외과의 임상간호사와는 활동하는 간호 상황이나 수행업무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적 사고성향 정도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추후 비판

적 사고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정신간호사와 임상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의 비교, 비판적 사고성향의 변화 양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비판적 사고성향의 각 하위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그 중 분석영역이 가장 높았고, 비판적 사고 자신감, 호기심, 진실추구, 체계성, 성숙, 개방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성향을 연구한 결과, 분석과 호기심의 점수가 높고 성숙과 개방성의 점수가 낮았던 Sung과 Eum (2009)의 연구와 Kim (2007)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분석 영역의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정신간호사가 항상 환자의 언어와 행동, 정서 등의 변화에 민감하고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파악하여 문제해결을 하여야 하며, 폭력에 대한 위협 등 다양한 정신과적 응급상황을 예측하여 대처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과정과 교육을 통해 분석적 측면이 훈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분석은 합리적인 근거나 증거를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호기심은 정보나 배움에 가치를 두고 사물이나 현상의 작용원리를 알고자 하는 지적 호기심으로 전문직 역할에서 필수적인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Profetto-McGrath, 2003). 그러나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 하위영역들의 균형적인 발달이 필요하므로 추후 이와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고 체계적으로 간호사의 개방성과 성숙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정신간호사들이 자신의 업무능력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퍼비전을 받아 교정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상급정신간호사의 역할 보급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40점 만점에 30.5점으로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을 분석한 You (200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고,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 등(2007)의 연구결과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특성에 대한 깊은 성찰과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판단을 통해 형성되므로(Mirels, 1977) 정신간호사는 대상자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성찰의 기회가 더 많고, 또 본 연구의 대상은 대부분이 임상경력 5년 이상의 경력간호사들로서 정신간호업무나 업무환경에 익숙하고 업무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향상된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은 교육정도, 근무지, 직위, 취득한 자격증, 직무만족 정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상자의 교육도와 취득한 자격증에 따라 비판적 사고성향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간호사의 학력이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Kim (2007)과 Lim (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정신간호사들이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이나 석사 및 박사과정에서 습득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비판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향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정신간호사들이 임상적 업무수행 중에도 자격증의 취득이나 학업 등 계속적인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비판적 사고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상자의 근무지에 따라 비판적 사고성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지역사회에서 근무하는 경우보다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하여 논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추후 기관의 특성에 따른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한편 그동안 비판적 사고에 관한 연구는 주로 개인의 인지수준이나 비판적 사고기술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적 전략에만 초점을 두고 시행되었다(Wafika & Jehad, 2007). Raterink (2011)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를 촉진 또는 방해하는 요인에 대한 설문을 통해 조사한 결과 팀워크, 인사, 직원과 행정가의 지지 등의 근무환경이 주요 요인임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정신간호사의 비판적 사고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간호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의 기회를 제공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은 직위와 직무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일반간호사보다 수간호사나 팀장 이상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 (2007)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였으나 Lim (2004)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수간호사나 팀장 이상은 일반간호사보다 학력이 더 높고 관리자로서 업무의 성격에도 차이가 있어(Kim, 2007) 비판적 사고를 통한 의사결

정이 더 많이 요구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 비판적 사고성향은 직무만족도가 높은 군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Kim (2007)의 연구와 Sung과 Eum (2009)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직무만족도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교육도와 취득한 자격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간호사가 취득한 자격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You (200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대상자가 자신의 발전을 위한 심화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성취감이 충족되고 정신간호업무를 수행하는데 자신감이 생겨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은 일생을 통해 변화하며 성인의 경우 업무와 관련한 요인에 의해 높은 영향을 받게 되므로(Yu, 2010)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정신간호사들이 지속적으로 높은 자아존중감을 유지하면서 수준 높은 정신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의 조성 등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아존중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비판적 사고성향의 하위영역 중 분석, 체계성, 비판적 사고 자신감, 호기심 영역이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었다. 이는 대상자는 다르나 자아존중감은 비판적 사고성향의 정의적 영역과 관련이 있으며 하위영역 중 비판적 사고에 대한 자신감에 영향을 주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음을 보고한 연구들(Barkhordary et al., 2009; Wafika & Jehad, 2007)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나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아존중감이 필수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정신간호사의 자격증, 교육, 근무지, 자아존중감이 비판적 사고성향에 대한 유의한 영향요인이었고, 57%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정신간호사들이 자격증 취득이나 학위과정 등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킴으로써 비판적 사고성향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근무지(병원)가 비판적 사고성향의 유의한 영향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병원의 정신과 병동이나 정신병원의

경우 정신보건센터나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주로 급성기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므로 간호사는 좀 더 다양하고 복잡한 간호상황에서 의사결정 하도록 요구됨에 따라 이러한 점이 정신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추후 정신과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나누어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정신간호사는 자격증 취득과 교육정도, 자아존중감 및 근무환경이 간호사의 비판적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정신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부족한 비판적 사고성향을 강화하고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더불어 정신간호사들이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과 지속적으로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는 정신간호사의 비판적 사고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비판적 사고성향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임상과 지역사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전문적인 정신간호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아존중감 정도를 파악하고, 비판적 사고성향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정신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대상인 정신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신 관련 자격증, 교육정도, 자아존중감 및 근무지로 나타났으며, 이들 전체 변수의 설명력은 57%였다. 따라서 정신간호사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균형적으로 비판적 사고성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무에서 정신간호사들이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정신간호사의 자아존중감은 비판적 사고성향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로서 정신간호사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중재가 요구된다.

REFERENCES

- Ahn, Y. H. (2004). Critical thinking and the standards of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 1, 99-106.
- Barbara, A. B. (2005). Critical thinking in nursing: An integrated review. *Journal of Continuing Education in Nursing*, 36, 60-67.
- Barkhordary, M., Jalalmanesh, S., & Mahmoudi, M.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and self esteem in third and forth year bachelor nursing students. *Irani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9(1), 13-20.
- Facione, P. A., Facione, N. C., & Giancarlo, C. F. (1994). *The Californi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ventory test manual*. Millbrae: California Academic Press.
- Fredric, L. G., Patsy, M. E., & Judith, B. (2007). Critical clinical competencies in under-graduate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6, 522-526.
- Gert, O., Carlo, L., & Wim, D. (2007). Why hospice nurses need high self-esteem. *Nursing Ethics*, 14, 62-71.
- Hwang, J. W. (1997).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fessional nursing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Jeon, B. J.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University Journal*, 11, 107-124.
- Kim, H. J., & Nam, H. K. (2007). A study of communit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s activi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6, 489-501.
- Kim, H. S., Yim, H. W., Lee, J. Y., Cho, H. J., Jo, S. J., & Lee, W. C. (2007). Influence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n the depression of some clinical nurse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 Environmental Medicine*, 19(2), 125-134.
- Kim, J. Y. (2007).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job satisfaction in clinical nurs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 Kwon, K. J., Ko, K. H., Kim, K. W., & Kim, J. A. (2010). The impa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on the nursing performance and retention intention among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6, 229-239.
- Lee, J. I. (2009). Self esteem, self 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5, 166-174.
- Lim, E. J. (2004).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ritical thinking skill in clinical nur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Mirels, C. (1977). Family interference, emotional 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70, 354-360.
- Moore, B. N., & Parker, R. (1992). *Critical thinking* (3rd ed.). California: Mountain View.
- Park, H. J. (2010). *The effects of counterfactual thinking on self-appraisal and mood state*.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 Park, S. M., & Kwon, I. G. (2007). Factors influencing nurses' clinical decision making-focusing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 863-871.
- Profetto-McGrath, J. (2003). The relationship of critical thinking skills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3, 569-577.
- Profetto-Mcgrath, J., Hesketh, K. L., Lang, S., & Estabrooks, C. A. (2003). Critical thinking and research utilization among nurses. *Western Journal of Research*, 25(3), 322-337.
- Raterink, G. (2011). Critical thinking: Reported enhancer and barriers by nurses in long term care: Implications for staff development. *Journal of Nurses in Staff Development*, 27(3), 136-142.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ung, M. H., & Eum, O. B. (2009).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nursing competence and job satisfaction in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5, 26-36.
- Wafika, A. S., & Jehad, H. (2007). Critical thinking, self-esteem, and state anxiety of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Today*, 27, 162-168.
- You, G. Z. (2009). *The job satisfaction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s in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Yu, H. S. (2010). *A study on self-esteem and turnover intention of new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